

隨處作주의 전나무, 늘 푸른 심검

(수처작주)

그 절집의 빛

③ 진안 천황사 전나무와 현산스님

진안고원의 천연기념물 전나무

천황사(天皇寺)는 진안고원에 있다. 예로부터 무주, 진안, 장수를 일러 산 접점 물 겹겹의 '무진장'으로 불렸다.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과 서쪽으로 뻗어내리는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한 진안은 고원지대다. 진안고원은 해발고도 300~500m로 전북지역의 지붕 역할을 한다.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니 금강, 섬진강, 만경강 등이 여기에서 물길을 열어 삶과 인문의 강물을 펼친다.

천황사는 꽃잎 속 암술처럼 진안고원의 접점산 산 속에 깃들여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천황사의 상징적 빛은 전나무의 변함없는 푸르름이다. 우리나라 전나무 중에서 2008년 6월에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나무가 천황사에 있다. 전나무는 소나무와 늘푸른 바늘잎나무다. 일직선으로 곧게 자라 수직의 삼엄함을 갖춘 나무다. 백두산을 비롯한 고산지대에서 원시림을 이루던 우리나라 토종이다. 가지에 상처가 났을 때 흰 액이 나온다고 하여 '젖나무'로도 부른다.

그런데 전나무는 천근성(淺根性) 수종이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태풍이나 강풍에 취약하다는 말이다.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키 큰 나무의 지향에는 결정적인 자기한계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천근성의 편백나무나 측백, 전나무 등은 같은 수종끼리 식수해서 더불어 숲을 이뤄 자연환경을 이겨내도록 숲을 조성한다.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길로 회자되는 오대산 일경사, 능가산 내소사, 남양주 광릉수목원 전나무 숲길도 그에 비릇된 백 년 안목의 산물이다. 반면에 독립적으로 수 백년동안 자라는 전나무는 흔하지 않다. 특히 태풍의 길목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독립으로 수 백년 된 전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경이로운 사태에 가깝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나무는 세 그루다. 함양 금대암 전나무와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그리고 진안 천황사 남암(南庵)의 전나무다. 금대암 전나무와 천황사 남암의 전나무는 '누가 가장 크고 가장 오래 되었는가'를 두고 쌍벽을 겨룬다. 그 세 그루 외에 화순 만연사 전나무, 태백 조판동 전나무, 김천 대야리 전나무, 순천 선암사 삼인당 전나무 등도 생명 문화재의 위용을 갖추고 있다.

오래된 전나무 숲을 살펴보면 하나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전통사찰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사실이다.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전나무의 특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즉 사찰 불전건물을 중수하거나 새로 지을 때 기둥이나 도리 등으로 사용할 목재 수급용으로 일차적 목료가 엿보인다. 내소사, 월정사, 청도 운문사, 금산 보석사 등의 전나무 숲길에서 그 뜻이 읽혀진다.

사찰수호 천왕목으로서의 전나무

하지만 천황사 남암을 비롯해서 천황사 일대의 전나무는 다른 뜻으로 다가온다. 우선 남암이 단

출한 오두막 같은 오막살이 수행처에 지나지 않아 기둥 개념의 목재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식수 된 자리도 금대암의 전나무가 지리산 천왕봉을 마주보고 있듯이, 구봉산 능선을 아우르는 대단한 조망권을 가진 자리다. 천황사 일대에서 띄엄띄엄 눈에 확 들어오는 전나무들을 보면 그 뜻이 보인다. 중창주 부도에, 사찰 입구에, 대웅전 프락 담장가에, 그리고 허름한 남암의 비탈에 한 두 그루씩 서있다. 다름아닌 사찰의 수호목으로, 천왕목으로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것이다. 서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세상의 중심이 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나무다. 수령 400년, 높이 32m, 가슴높이 둘레 4.9m에 이르는 당당한 위용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흐른다. 수직의 기둥이 직립한 사찰왕처럼 확고부동하고 삼엄하



태풍에 우듬지가 부러진 대웅전 프락 담장가의 전나무. 온전하다면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전나무일 것이다.

산 첩첩 물 겹겹의 진안고원의 고찰

구봉산 능선 아우르는 조망권의 전나무

아미타경에 나오는 정토세계 따로 없어

따뜻한 밥 한 끼 공양올리는 좋은 사람



현산 스님(왼쪽)과 법은 스님(오른쪽). 현산 스님은 사찰음식의 숨은 실력자이다. 법은 스님은 행자승으로 서울에서 함께 내려와 지난해 사미니계를 받았다.

다. 수처작주로 변뇌의 근원을 자르는 반야의 심검을 버리는 듯한 기세다. 수 백 년 동안 침묵 속에서 흔들림 없이 버려 온 구도의 외질이 천 길 낭떠러지다. 천황사가 지닌 늘 푸른 심검의 빛이다.

천황사에는 천연기념물급의 전나무가 한 그루 더 있다. 대웅전 프락의 담장가에 바투 붙어있는 전나무가 그 나무다. 표지석의 설명문에는 수령 800년, 높이 35m, 가슴높이 둘레 5.1m로 기록하고 있어 남암의 전나무보다도 오히려 더 큰 위용을 갖췄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 나무 상층 우듬지 부분은 부러져 나가고 지금은 밑동인 동치만 남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부러진 상처 그대로의 몸으로 살아있는 화석이 되었다. 천황사 모퉁이에서 고전처럼 빛나는 생명문화재이다.

현산스님과 화목한 수행공동체

천황사의 전나무는 확고부동한 심검의 빛이다. 그런데 천황사에 오직 한 길은 가는 부드러운 빛이 있다. 그 빛은 한 비구니의 빛이고, 동시에 스님과 보살들이 일구는 화목한 수행공동체의 빛이다. 그 중심엔 현산스님이 계신다. 언제 찾아가도 도량엔 웃음이 넘치고 자상함과 화목함이 감돌처럼 흐른다.

현산스님과 보살님들의 인연은 비구니계를 대표하는 어른이셨던 광우스님의 그늘에서 맺어졌다. 현산스님은 서울 정각사에서 20년동안 광우노스님을 모셨다. 서울에서 진안으로 함께 내려온 보살들은 그 때 경전공부와 마음수련을 함께 하던 불탑회 회원들이다. 법은 스님은 입산하여 행자승으로 이 곳에 동행했다. 그 때가 2014년 3월이다. 그 전에는 비구니 한 분이 이 도량을 지키고 계셨다고 한다. 비구니 스님과 보살들이 내려온 후, 절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양이다. 우선 절 입구 조포마를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분위기가 활발해지면서 절집에 생기를 갖췄다. 지금도 틈틈이 마을 사람들이 직접 재배한 식재료며 양념들을 갖다 준다. 현산스님은 말씀마다 '이 청정도량 덕분에'라는 수식을 다신다. 손님 응대의 90퍼센트는 도량의 자연이 한다며 이 곳 자연에 대한 예찬이 대단하시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가 따로 없어요. 전나무, 은행나무 등 아름드리 보배수 나무가 수호목처럼 둘러쳐져 있고, 철따라 온갖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요. 우리는 비구니에 그 꽃을 필요 한만큼 거두서 부처님전에 올리지요. 온갖 산새들은 또 아침 저녁으로 저마다 아름다운 노래를 해요. 숲에서 내려오는 안개는 스스로 환상적인 공연을 매일같이 펼쳐 주지요. 산으로 첩첩 둘러싸인 까닭에 우리절 마당은 원형극장이예요. 로마의 원형극장처럼 공명효과가 나타나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죠. 비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저산 마루에 내리는 비소리죠. 옆에 있던 법은 사미니승도 덩달아 거든다. 어떤 때 대웅전 마당에는 비가 내리는데, 여기 요사채에는 비가 안와요. 그럼 내가 비보다 빨리 달려가서 빨래를 거둬 오죠. 해해, 저는 도시에만 살았어요. 사계절의 변화조차 몰랐어요. 이 곳에 와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계절이 있음을 알았어요. 또 벌레들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벌에 밟힐 정도로 많은 벌레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져요. 그 벌레들이 나비가 된 거예요. 또 일주일 지나면 그들도 사라져요. 모두가 인과 연의 연기법에 따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관념이나 법문이 아니라 생활에서 연기법을 만나요. 청정도량 예찬이 끝없이 이어진다.

노스님 20년 공양한 사찰음식의 실력자

화제를 돌려 현산스님의 사찰음식에 얽힌 사연을 청했다. 현산스님은 요리를 어디서 배우신 분이 아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그 숨은 실력이 세상이 퍼졌다. 365일 삼시세끼를 20년동안 노스님께 봉양하면서 스스로 몸에 익힌, 일종의 구도행의 산물이다. 음식 만드는 것으로 수행의 방편으로



진안고원 천황사 남암의 천연기념물 전나무.

삼으셨다. 저희와 같이 여기에 내려온 보살님은 5~6명이예요. 우리의 공통분모에는 노스님 공양과 경전공부를 함께해온 세월이 있어요. 그 세월 속에는 갈등도 있겠지요. 물건 하나 집을 때마다 노스님께서 그랬어요. 왜 물건을 잡는데 마음을 갖들이지 않느냐? 왜 그리 물건을 놓느냐? 정신 차리고 했느냐고 물어보셨지요. 그런 노스님의 가르침이 저도 모르게 몸에 맺어졌어요. 혼수처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의식주가 행해지는 일상으로 내렸어요. 일체중생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참선, 염불, 진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의식주가 행해지는 공간에서 정성을 다해 따뜻한 밥 한 끼 드리는 거지요. 스님으로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참 따뜻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를 바래요. 수행자의 길은 이 곳 저 곳의 길이 아니라 봐요. 곧

고 좁은 길이예요. 오랫동안 이어 온 선명한 길이예요. 제 길은 노스님의 등을 보고 걷는 길이예요. 노스님의 길은 또 부처님께서 걸어간 길이지요. 현산스님의 말씀에 자연과 중생과 스님과 부처님의 조화로움과 화목이 빛난다. 말씀 속에 자애로움이 뚝뚝 묻어나요. 그리고는 스님께서 '우마의 방'으로 부르는 공양간으로 들어가서서 먼 길을 돌아가야하는 필자를 위해 20분만에 딱딱 한 그릇을 마련해 주셨다. 아, 결국 밥 이야기다. 김 오르



노해학(불교미술 사진작가)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양초 특징 :
① 그윽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격 : 590x18mm
연소시간 : 60~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랍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랍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랍양초는 특수 PC접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본 직수입



심산향, 린단향, 후리자아, 라일락향, 밀감향

상당문의 (031) 766-0242 / 팩스 031) 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 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 구성

성불라디오(가로 12cm x 세로 5.7cm x 두께 2.5cm) + 4GB 불경SD카드 + 1200mAh 배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성불라디오 권불회



사용설명서

구입처 : **현대불교헌불상**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헌불상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회)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4. 법마 캐슈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만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영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맑은 곳에
12. 반손으로 왔다
13. 사람을 쓸 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을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버리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뜻을 침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문
25. 예불문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악한계
30. 선도역의 노래
31. 장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진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동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갈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선도역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분